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2호

2025 Vol. 6, No. 2, 077 - 106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상호작용과 경계 : 르페브르 사회적 공간 이론을 중심으로

김은빈*, 조하리**, 이교일***

이 연구는 앙리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 이론을 개념적 틀로 적용하여,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과 공간의 재의미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신장애 대학생은 입학 초기 대학 공간에 대한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상호작용 경험 이후에는 정신질환 증상과 사회적 낙인이 결합되어 불안과 회피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공간은 ‘배제와 소외의 장소’로, 또 다른 일부 공간은 ‘부분적 제약이 있는 보호지대’로 재의미화되었다. 둘째, 정신장애 대학생은 특정 공간에서 경험한 ‘기억과 감정’을 토대로 공간을 재해석하여 자신만의 공간을 선택하고 이동하였다. 이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지대를 찾고 공간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주체적 실천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대학이 정신장애 대학생을 위한 공간을 계획할 때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심리적 안전감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적·실천적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정신장애 대학생, 앙리 르페브르, 사회적 공간, 심리적 이동권, 상호작용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실버복지학과 조교수, rewaev@naver.com

I. 서론

최근 국내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의 62.8%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30%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자살 고위험군이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대학상담협의회, 2022). 이러한 결과는 많은 대학생들이 정체성 확립, 사회적 독립,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육근실, 신성희, 2024). 또한 대학 내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상담 건수가 최근 2년간 약 두 배 증가했다는 사실(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대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활적응은 단순한 환경 순응이 아닌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 과정이다(Schaffer, 1956; Adams, 1972, Lazarus, 1976). 기존 연구에서는 대학생 활적응 과정에서 갖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친구, 교수 등 주요 타자와의 관계는 학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며, 교내 동아리나 학습 공동체와 같은 소속 집단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장(場)으로 기능하였다(조명근, 한송이, 2025). 그러나 정신장애 대학생은 높은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요구하는 대학환경,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정서적 어려움, 신체장애 중심의 제도적 지원 한계 등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 부담이 가중되었다(강혜경, 김정효, 이경순, 2011; 이종남, 김근면, 2016).

한편, 정신장애는 비가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위험성’, ‘무능력’, ‘예측불가’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대중에게 인식되어 있어 정신장애인은 강한 낙인과 편견에 직면한다(김문근, 2015).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당사자에게 내재화되어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참여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안희철, 김민아, 박경미, 2016). 그러므로 정신장애 대학생이 다른 대학생과 같이 동등한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 대학교에서 학생생활상담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자는 교육이나 진로지도 중심(안성희, 2017), 후자는 신체장애 중심의 물리적 지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이종남, 김근면, 2016). 이러한 이원화된 경향은 정신장애 대학생이 각 센터에 실시하는 서비스 대상조건 경계에 놓이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들은 대학 공간 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사회적 공간 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을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권력구조, 상징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생산되는 총체적인 사회적 산물로 보았다. 그는 사회적 공간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며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재현적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삼원구조는 공간을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구조,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데 유용하다(박성준, 2024).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경험은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리적 제약, 사회적 낙인과 편견, 대학제도 및 규범이라는 구조적 맥락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험에 기반하여 물리적 이동성을 이해해야 한다. 르페브르의 이론은 거시적 권력구조와 미시적 경험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경험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대학생’을 우울장애, 조현병, 불안장애, 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대학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국내 장애인복지법상으로 ‘정신장애인’을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의한 ‘정신질환자’보다 범주가 좁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대학생은 학생생활상담센터와 장애학습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또한 정신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낙인과 공간 이용의 한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회적 모델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법적 정의에 근거하여 ‘현재 정신질환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정신장애 대학생으로 정의한다.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은 심리적 요인, 사회적 관계, 제도적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적이고 다층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조사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의미, 감정, 관계의 변화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질적연구가 적절하다. 이에 이 연구는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이 대학 공간을 어떻게 재의미화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은 기존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연구의 분석틀을 이론적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정신장애 대학생은 대학 공간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경험하는가?
- 연구문제 2. 정신장애 대학생은 대학 공간을 어떻게 재의미화하는가?

II. 문헌고찰

1. 대학 공간에서 정신장애 대학생의 상호작용과 배제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이 환경에 일반적으로 순응하는 수동적 과정보다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능동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은이, 박용한, 2009; Schaffer, 1956; Adams, 1972; Lazarus, 1976). 대학생활적응을 학업, 사회적 관계, 정서적 적응과 대학 애착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학문적 요구 충족, 사회적 관계 형성, 진로 준비 등 복합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다(Baker & Siryk, 1984). 이러한 대학생활적응은 지적 성장, 정체성 형성, 심리적 안정 등 미래의 삶과 연결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은 전인적 발달의 토대가 마련되는 반면, 적응에 실패할 경우 좌절감과 소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에는 교수 및 또래집단과의 사회적 관계, 교내 활동 참여, 소속감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은경, 2005; Trolan et al., 2016). 또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의 중요한 자원이므로(조명근, 한송이, 2025), 장애 학생의 경우 비장애 학생보다 이러한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 장애 대학생에게 대학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문화, 학업, 사회적 관계의 장이므로, 이는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Stodden, 2005). 그러나 실제 대학생활에서 정신장애 대학생은 이중 어려움을 경험한다. 첫째, 대학 공간은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 강의실 이동, 시간 관리, 수업방식에 대한 적응 등 여러 영역에서 독립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구조는 정신장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활적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강혜경 외, 2011). 둘째, 정신장애 증상 자체가 학업 집중력, 학습동기, 기억력 등을 저하시켜 중도 탈락의 위험을 높이며(김정진, 2004; Mohr et al., 1998), 교수와의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정신장애 대학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어렵게 한다. 대학 내 학생생활상담센터는 교육 및 진로지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치료 및 적응지원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안성희, 2017). 한편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신체장애 중심의 물리적 지원(장애학생도우미, 보조기기 제공, 시험 편의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신장애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이종남, 김근면, 2016). 두 센터의 분리된 서비스 구조는 정신장애 대학생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시도하더라도 실제로는 배제되거나 주변화된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대인관계 회피와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어 심리적 위

축을 유발한다. 이는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대학 입학 초기에는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교수나 또래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제약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참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은진, 유성경, 2001; 김자경, 신보희, 2015).

따라서 이 연구는 정신장애 대학생의 '적응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들이 대학 공간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경계와 배제 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이 대학 공간을 재의미화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학업 지원에 집중해 온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론적 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사회적 공간

일반적으로 공간은 물리적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러한 물리적 접근만으로는 공간의 복합적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서,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과정이 중층적으로 축적된 사회적 구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동일, 2022). 즉 공간은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으므로 물리적 특성을 초월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을 갖게 되는 장(場)이다. 공간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동일 외, 2017). 따라서 공간은 개인과 공간,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의미가 창출되는 사회적 구성물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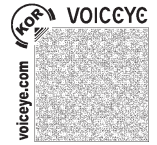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의 사회적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였다. 그는 『공간의 생산』(Lefebvre, 1974)에서 공간은 자명하게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권력관계, 이데올로기적 작용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을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공간의 실천(spatial practice), 재현적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공간의 재현은 계획가, 설계자, 정책 입안자들이 개념적으로 설계한 공간으로, 대학의 제도적 구조, 교육과정, 물리적 설비, 운영규칙 등을 포함한다. 공간의 실천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생활에서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과 행위 양식으로, 강의실 수업, 동아리 활동, 캠퍼스 이동 경로 등 구체적 실천을 통해 공간의 사회적 의미가 재생산된다. 재현적 공간은 개인의 감정, 기억, 상징이 결합된 주관적 공간이므로, 특정 장소에서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낙인과 배제의 기억도 환기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삼원구조는 물리적 장소와 인간의 실천과 인식, 상징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공간 개념을 정립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박성준, 2024).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경험을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이들은 물리적 제약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의 재현 차원에서 대학은 학습과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표방하지만, 실제 설계와 운영에서는 정신장애 대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공간의 실천 차원에서는 강의실, 도서관, 휴게공간 등에서 물리적·심리적 장벽이 존재하며, 비장애 학생이나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거리감과 불편을 경험할 수 있다. 재현적 공간 차원에서는 낙인과 편견이 내면화되어 특정 공간을 회피하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대학 공간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과 제도에 따라 정신장애 대학생에게는 접근과 참여가 제한되는 ‘배제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대학 공간에서 정신장애 대학생이 경험하는 상호작용과 배제의 양상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경험하는 생활을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특히 ‘대학 공간에서 배제되는 존재’로서 정신장애 대학생이 직면하는 대학 공간 내에서 배제 과정을 규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정신장애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며, 그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경험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질적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를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연구방법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탐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거나 변화 양상을 탐색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유기용 외, 2018). 또한 현재의 현상을 실제 생활 맥락 내에서 연구하는 경험적 탐구로서도 가치가 크다(Yin, 2011). 따라서, 이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에서의 경험을 하나의 사례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과 대학 공간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1. 자료수집

연구참여자는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4년제 대학 재·휴학생 8명이며, 선정을 위해서 비확률표집 방법 중 의도적 샘플링(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의도적 샘플링은 특정 현상에 대해 서술하고 해석을 통해 통찰과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적합한 표집방법이다 (Padgett, 2001). 정신장애는 여전히 사회적 낙인감이 높은 장애유형이므로(박지혜, 이선헤, 2016),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의도적으로 표집해야 했다. 또한 2021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결과에 따라 정신장애 진단군별 1년 유병률 중 높은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위주로 표집하였다. 국내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홍보게시판을 통하여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연구참여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1)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2)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자, 3)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4) 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8명의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자료 포화 원칙에 따라 새로운 주제나 패턴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점에서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름, 성별, 대학교, 학년, 재학 여부, 진단명 등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모두 가명처리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명단과 일반적 특징

번호	이름	성별	대학교	학과	학년	재학여부	진단명
1	조OO	여자	A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재학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장애, 우울장애
2	서OO	남자	B대학교	무역학과	4	휴학	우울장애
3	김OO	여자	C대학교	광고홍보전공	2	휴학	우울장애
4	이OO	여자	A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	3	재학	우울장애
5	전OO	여자	B대학교	상담심리학과	4	재학	우울장애, 불안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6	조OO	남자	B대학교	간호학과	3	재학	우울장애
7	이OO	남자	A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3	재학	우울장애
8	하OO	남자	A대학교	재활상담학과	4	재학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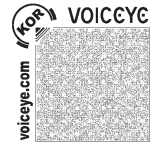
2025년 6월 23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의 깊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현상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김인숙, 2016). 또한 보다 풍부한 자료를 얻기 위해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1회당 약 60~9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진행 장소로는 스튜디오이나 조용한 카페에서, 일부는 연구참여자가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자신의 얼굴 노출을 희망하지 않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연구의 주제에 따라 면접질문지를 구성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하며 진행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정신질환을 가진 대학생으로서 대학 내에서 경험한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그에 따라 대학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대학 공간 중 편한 공간과 불편한 공간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으며, 인터뷰 종료 후 즉시 전사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2. 자료분석

이 연구는 일반적인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통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 분석은 연구자가 자료를 읽으면서 나타나는 주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중심 개념들을 도출하는 것이다(Creswell, 1998). 이 과정에서 면접내용을 축약하고 주제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연구자의 통찰과 해석을 사용한다. 이때 연구자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사례에 대해 자세한 기술과 주장을 곁들일 수 있다(Stake, 1995).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녹음된 모든 연구참여자의 면접 내용을 듣고 전사한 후,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였다. 둘째, 녹취록을 여러 번 정독하고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표시하였다. 그리고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을 찾고 개념들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 '낙인', '공간의 어려움' 등을 발견하였다. 셋째, 추출한 개념들을 재검토하고 다시 녹취록을 검토하면서 핵심 주제의 개념들을 찾아 나갔다. 넷째, 앞선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제들이 면접 내용들을 잘 반영하는지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정리된 핵심 주제들은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에서 상호작용 경험과 재의미화를 살펴보는데 토대가 되었다. 한편 분석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료검토를 실시하여 연구자의 해석을 점검하였다.



3. 연구윤리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따랐다.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과 중도 철회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관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낙인이 있는 민감한 주제이므로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거나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집하였으며, 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취록은 연구자만 접근가능한 암호화된 저장장치에 보관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한 뒤 폐기할 예정이다.

IV. 연구결과

이 연구에 참여한 정신장애 대학생 8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학에 대한 기대와 상상’, ‘침묵과 연결 사이에서’, ‘대학이 ‘사회적 공간’이 되는 순간 : 안전지대와 위협공간’, ‘새로운 공간의 생산과 변화의 과제’로 총 4개의 주제와 ‘나를 만들어 갈 기회의 장’을 포함한 총 11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제분석 결과

주제	하위주제
대학에 대한 기대와 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만들어 갈 기회의 장 • ‘나’를 재발견하는 가능성
침묵과 연결 사이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거운 입, 더딘 대화 • 편견이 만드는 소리없는 거리감 • 공감의 언어로 둘러싸인 보호지대
대학이 ‘사회적 공간’이 되는 순간 : 안전지대와 위협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속에서 하나의 존재로 인식되는 공간의 의미 • 주체적 해석을 통해 만들어가는 나의 공간 • 위협으로 기억되는 대학 공간
새로운 공간의 생산과 변화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를 경험할 기회의 필요성 • 낮아져야 하는 낙인의 허들 • 개인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사회 조성

1. 대학에 대한 기대와 상상

르페브르가 말하는 공간의 재현은 기획자·설계자·정책 입안자 등이 그린 제도적 이미지이며, 이상적 사회로 재현되는 공간 이미지를 포함한다. 대학의 제도적 이미지는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에 대한 기대감’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기대감은 ‘자유로움, 사회관계 확대, 자아정체성 회복 가능성’과 같은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

1) 내가 만들어 갈 기회의 장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진학을 교육과정의 연장과 새로운 관계 형성, 주체적 일상 설계가 가능한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대학교에서는 자유로운 시간 활용과 개인의 관심사 중심의 활동, 정신장애 편견에서 벗어난 상호작용을 기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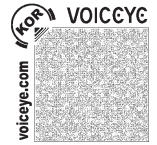
“기대도 있긴 했죠. 왜냐하면 고등학교랑 다르게 대학교는 그래도 막 그러잖아요. 막 캠퍼스 라이프 재밌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중략) 이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면은 인간관계 풀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간 군상도 만날 거고, 좀 더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학생이라는 제약이 풀리고 규율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니까.. 오픈된 곳에서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재미있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좀 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대학이라는 공간을 자유로운 생활공간으로 상상하였다. 규율적인 고등학교 생활과 달리, 대학은 자율성과 다양한 경험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저랑 취미가 맞는 동아리에 들어간다던지 동기들이랑 좀 어울린다 이런걸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2)

“저는 고등학교에 비해서 시간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2와 3 역시 대학을 새로운 관계 형성과 자기주도적 시간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의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 대학에서는 관심사 중심의 활동과 시간의 자유로움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음을 보여준다.



2) ‘나’를 재발견하는 가능성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을 삶의 재설계와 정체성 회복의 기회로 인식했다. 특히 정신 질환으로 인한 삶의 단절 이후 재입학을 선택한 연구참여자는 대학을 심리사회적 돌파구의 장(場)으로 간주했다.

“학교라는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되게 좀 살아있잖아요 (중략) 내가 그러면서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중략) ‘그래봤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에서 ‘좀 탈피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내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라도 그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돌파구가 학교였고, 여기서 또 내가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살아갈 나에 대해서 그거를 좀 기대했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8은 대학을 삶의 전환점이자 자아 탐색의 출발점으로 인식하였다. 단절된 경험 속에서 “변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기대를 품으며 대학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였다.

“저는 초중고등학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축소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나의 편견을 3년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제 첫 인상이 3년을 가는 곳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여기(대학교)는 큰 사회니까 여기서는 내 편견을 마주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 그리고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오히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컸죠.”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7은 대학을 다양성과 포용성이 보장되는 더 큰 사회로 인식하였다. 정신장애 인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어려운 청소년기 학교와 달리, 대학은 낙인을 극복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하였다.

이처럼 대학은 학문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를 재발견하고 사회적 낙인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재의미화된다. 이는 대학이 제도적으로 표상하는 이미지(자율성, 성장, 다양성)가 정신장애 대학생에게도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대학에 대한 기대감은 르페브르의 ‘공간의 재현’이 제도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희망 및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침묵과 연결 사이에서

르페브르가 말하는 ‘공간의 실천’은 사람들이 일상 공간에서 공간을 이용하고 상호작용하는 구체적 양식을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 장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위, 사람이나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 사회적 규범의 재생산 과정을 포함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이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이들은 정신질환 증상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의 폭과 질이 제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신장애 대학생의 상호작용은 종종 지연되거나 단절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보호지대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 무거운 입, 더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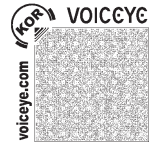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대학 입학 전 기대와 달리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하여 상호작용 제약을 경험하였다. 정신질환 증상인 ‘집중력 저하’와 ‘충동적인 발언’은 스스로에 대한 과도한 자기검열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의 흐름이 끊기고 긴장감 고조와 감정소진으로 나타났다.

“(중략) 말을 약간 못 알아듣는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을 하시면 네? 라고 되물어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되물어야 되는 상황이 진짜 많고, 말을 충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말하게 돼 가지고 약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은 다른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집중력 저하와 충동적 발언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제가 시선을 좀 의식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좀 편하게 있을 수가 없고, 가끔 뭐 그런 생각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내 욕 같은 거 하지 않을까 같은 걱정을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연구참여자 5)

“정신질환이 있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지? 나쁜 의도가 애는 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무슨 의도일까 생각하다가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생각을 왜 하지? 그냥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또 왜 하고 있을까요?’ 또 빠지는 거예요. 이 굴레에 빠지는 거로 보면 이게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심한 사람은 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5와 8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자기검열과 불안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며 반복적으로 의심과 반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이들이 침묵이나 회피를 선택하게 만들었으며, 대학 공간에서의 관계 형성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2) 편견이 만드는 소리없는 거리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연구참여자들의 ‘대학 공간에서의 침묵’을 강화시켰다. 정신질환이 드러날 경우 부정적인 평가나 관계 단절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작동하였다.

“진짜 아예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 적지 않게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가볍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의지 부족 탓으로 몰아간다는 그런 게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중략) 우울증 있다. 정신과 다닌다 하면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그런... 막 깔 들고 그런다거나 아니면 진짜 머리에 꽃 달고 약간 지능이 낮은 약간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직 좀 있더라고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국내 대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정신질환이 여전히 ‘위험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상태’라는 부정적 편견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편견이 대학 공간에서도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정신질환이 이제 온전하게 다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뭐 정신병자다 약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물론 상담심리학과를 다니고 있지만 그 친구들 마음속을 제가 다 알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 약점이 될 부분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연구참여자 5)

“그냥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정신)질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선블리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런 거에 있어서 혼자 이겨내려고 하니까 좀 어려웠어요. 사회가 안 좋게 보고하니까... (중략)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 인간관계가 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없는 인간관

계에서 더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5와 2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실제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을 더욱 위축시키고 침묵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인간관계가 단절될까봐 우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편견이 예상되는 순간 상호작용은 더욱 어려워졌다.

“조현병 환자 봤냐 교내에서 봤냐 하셨는데 저희는 조현병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 많이 지나다니지 않냐 생긴 거 보면 딱 아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

“솔직히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교수님들이니까. 정신질환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아직도 정신질환을 자기 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솔직하게 말하기 많이 겁나죠.”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1과 5는 교수들 역시 정신질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교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진로 개발을 지원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교수 역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교수와의 소통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공감의 언어로 둘러싸인 보호지대

정신장애 대학생들은 낙인과 증상으로 인해 대학 공간에서의 관계형성이 쉽지 않았지만,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찾아내고 자신을 보호하는 지대를 형성하였다. 보호지대는 크게 ‘어른’과의 관계와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아무래도 교수님이 약간 검증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비밀 보장을 해 줄 것 같아서” (연구참여자 1)

“저희 과가 상담심리학과다 보니 교수님께서 이제 좀 이해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도교수

남께서 제가 수업을 워낙 안 나오니까 신경 써주셔서 부르셨거든요. 제가 그때 학교 오는 게 약간 무섭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나와서 자기랑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이런 식으로 좀 학교 나오는 데 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나무라지도 않고 학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출석 같은 것도 과제로 어떻게든 좀 무마해 주려고 좀 도와주셨어서..."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구성원 중에서도 특정 교수에게서 비교적 안정감을 느꼈다. 특히 연구실이나 강의실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한 교수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도 편견보다는 비밀을 지켜주고 도움을 주려고 했다. 정신장애 대학생은 이러한 교수를 '검증된 사람',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학과 내 지도교수님께 정신질환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신질환에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있다고 해버리면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저는 학과가 그쪽인데 그 후에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나를 간호해 주는 간호사가 정신 질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꺼려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딱히 밝히고 싶지는 않네요." (연구참여자 6)

"(학과 내 지도교수님께 정신질환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픈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게 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느냐의 문제잖아요." (연구참여자 7)

그러나 일부 연구참여자도 학과 교수에게 정신질환을 밝힐 경우, 자신의 진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뢰하는 다른 학과 교수에게는 자신의 정신질환을 공유하여 이해와 지원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신장애 대학생에게 '교수'라는 존재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대학 공간에서 학생의 정서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의 이러한 선택적 패턴은 또래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정신질환 경험이 있거나,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또래에게는 자신을 쉽게 드러내고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말을 했고 그 친구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있어 가지고 그냥 같이 말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1)

“좀 친해지다 보면 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배경 설명을 해 주는 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오픈을 하고 가는 게 좀 있죠.” (연구참여자 7)

“워낙 친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정신질환으로 힘든 부분 같은 거를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편견 없이 받아들여줬다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과하게 신경 써주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괜히 이런 얘기하면 분위기 안 좋아지게 됐으면 내가 괜히 분위기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해도 위로 해주고 또 가볍게 분위기 풀면서 다른 얘기도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친구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5)

또래관계의 보호지대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주는 관계’일 때 기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보호지대를 통해 대학 공간에서 사회적 배제와 낙인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인 형성한 보호지대는 이들의 상처를 최소화하며 대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주체적 전략이었다. 교수 및 또래관계에서 형성된 보호지대에서는 대학의 물리적 공간과 중첩되지만, ‘신뢰와 공감’라는 공간의 의미가 생겼다.

이처럼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경험은 대학이라는 제도적 공간 내에서 ‘침묵’과 ‘연결’의 경계를 오가며 구성되었다. 이들의 침묵과 회피는 사회적 배제와 낙인으로부터의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능동적 전략이었다. 동시에 이들은 ‘공감의 언어’를 교환할 수 있는 교수나 또래를 통해 의미있는 연결을 시도하여 새로운 관계적 공간을 형성하였다. 이는 르페브르가 제시한 공간의 실천 차원에서 동일한 공간이라도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경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대학이 ‘사회적 공간’이 되는 순간 : 안전지대와 위협공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대학 공간을 주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들이 선택한 공간은 빈 강의실, 도서관, 단과대학 내 라운지처럼 개인의 영역이 보장되는 장소가 있었다. 그리고 연구실, 동아리실, 대학 내 카페 등 타인과의 선택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장소가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인터뷰에서 주목할 점은 동일한 대학 공간일지라도 연구참여자가 그 공간에서 경험한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주관적 해석이 공간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즉, 연구참여자의 기억과 감정에 따라 공간이 재의미화되었다.

이는 르페브르의 재현적 공간 개념과 부합하는데,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축적되고 이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고유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신장애 대학생들에게 대학 공간은 제도적 이미지나 물리적 공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재의미화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1) 관계 속에서 '하나의 존재'로 인식되는 공간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은 상호작용의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자신을 '불편한 사람' 혹은 '거리를 뒤야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공간을 찾아갔었다.

"(동아리실에 대해) 저기는 딱 제가 문을 열 때마다 애들을 모을 수 있어서. (중략) 그냥 저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니까. 굳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일단 저를 필요로 하고 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니까." (연구참여자 4)

"뭐 별 사람 다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거 하나 오픈한다고 이상해지지 않는 거죠. 거의 저기는 이미 소수자 모임이고 (중략) 거기서 우리가 정상이죠"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4는 과거 학과 내에서 따돌림으로 배제의 경험을 겪은 학회실과 달리, 동아리실은 자신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래학우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기억된 공간이었다. 마찬가지로, 학교 내 비공식 소수자 모임은 '정신장애'를 의식하기보다는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받은 기억이 있는 공간이었다.

"(실험실에 대해) 그렇게 둘이 있어서 일단은 뭐 얘기 코드는 잘 맞아요. (중략) 어느 정도 얘기가 맞아요. 저도 희한하게 나이 든 분이랑 얘기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도 좀 괜찮은 공간? 편한 공간이긴 해요." (연구참여자 8)

"(교수님 연구실에서) 그렇게 힘든 것이 너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지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깐. 왜냐하면 그 나이 때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끔찍한 일이라는 것에 공감을 해 주니까. 친구들은 사실 공감 못 해 주는 경우가 좀 흔하거든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게 그렇게 힘든 부분인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또래에서는. 근데 어쨌든 나보다 좀 더 선생이잖아요. 먼저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험들을 봤고 어쨌든 선언적으로 깨달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

람들이 이제 너 나이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고.” (연구참여자 7)

“좀 마음이 조금 깨끗해진 느낌이었어요. 부모님이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조금 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위로해 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지고 약간 더 그랬던...” (연구참여자 1)

일부 연구참여자에게 교수 연구실은 정서적 안전지대가 되었다. 실험실과 연구실은 긴장감이 존재하거나 과업을 수행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박민영 외, 2023), 연구참여자에게는 물리적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근로지원 선생님이나 교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정서적 안정과 회복의 기억을 지닌 공간으로 재의미화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물리적 장소’ 외 관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기억이 있을 때, 정신장애 대학생에게 그 공간은 안전지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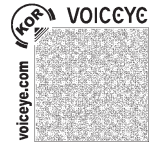
2) 주체적 해석을 통해 만들어 가는 나의 공간

연구참여자들이 선호하는 다른 공간은 ‘개인의 영역이 존중되는 공간’이었다. 조용한 도서관과 라운지는 혼자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하였다.

“제 마음이 편한 공간이라고 하면은 도서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성이 있잖아요. 나는 무슨 책들을 찾으러 왔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잡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 같은 게 없죠. 내가 지금 뭘 찾아야 된다는 것만 있지 (중략) 도서관에 가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공간이니까” (연구참여자 7)

“(도서관에 대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이렇게 너무 공공 예절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막 해도 되고 딱히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저는 도서관 아니면 그냥 학교 강의실 건물 내에 쉬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쉬기도 했어요. 강의실 건물에 그냥 의자에서 앉아서 쉬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도 사실 좀



조용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조용한 공간이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3)

연구참여자들은 도서관을 단순히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환경은 불필요한 사고와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자신만의 안전지대로 기능하였으며, 사회적 규범과 자율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공간으로 경험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서관과 라운지가 지닌 공공성은 오히려 사람들 간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였고, 그러한 거리 속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기숙사 룸메이트와 소통을) 아예 안 해요. 네. 쉬어야 되는 공간까지 인간관계를 가지고 오기는 싫은 거죠. (중략) 어차피 한 학기 보고 말 사람이라면 거기서 서로 벽친 듯이 살아야 실제로는 둘이 같이 있어도 벽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니까 온전히 내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내 공간이 아닌데 가상적으로 내 공간이 생기는 거죠” (연구 참여자 7)

기숙사 같은 경우, ‘물리적 공유 공간’이므로 개인에게 온전한 사적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7은 룸메이트와의 교류를 의도적으로 줄여 ‘가상적 개인 공간’을 확보하였다. 실제로는 함께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주체적 해석을 통해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3) 위협으로 기억되는 대학 공간

하지만 모든 공간이 안전지대로 기능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대학 공간은 여전히 심리적 장벽과 위협으로 다가왔다.

“제가 그때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가는 압박감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냥 몸이 안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위에서 뭐가 짓누르듯이 이제 몸을 도저히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다 학교를 갈 준비를 해도 학교 가는 길에 되면 너무 답답하고, 이제 마치 뭐 죽으려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학교 가다가도 도중에 집에 돌아온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연구 참여자 5)

연구참여자 5의 사례는 대학생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대학 공간 자체를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일한 물리적 공간일지라도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기억에 따라 공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대학 공간은 물리적 구조와 함께 관계적 규범과 개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공식적인 대학 공간 안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상호작용과 고립, 치유와 회피가 교차하는 '사회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만의 의미'란 특정 공간에서 경험한 기억과 감정을 토대로 공간을 재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르페브르가 말한 '재현적 공간'의 특성, 즉 대학 공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정서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사회적 산물임을 보여준다(Lefebvre, 1974).

하지만 이러한 공간의 재의미화 과정은 개인의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정신장애 대학생은 행정적·제도적 지원 없이 스스로 안전지대를 찾고 공간을 재의미화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공간일지라도 성공적인 상호작용 경험은 안전지대로 이어졌지만, 실패할 경우 위협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현재 대학 공간이 개인의 의지에만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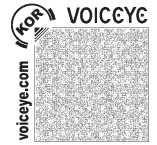
4. 새로운 공간의 생산과 변화의 과제

정신장애 대학생에게 대학 공간은 정신질환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두려움의 장소이자, 증상으로 인해 대학생활이 어려운 공간이다. 그렇지만 다른 대학구성원과 상호작용을 원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사회가 부여한 '정신질환자'라는 고정된 프레임 속에서 이들은 대학 안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동등한 대학생으로서 성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다. 이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 환경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이는 르페브르가 말하는 '공간의 생산'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와 제도가 대학 공간의 포용성을 재구성하는 핵심요소임을 시사한다.

1) 함께를 경험할 기회의 필요성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타인과 관계 맺길 원하지만, 낙인으로 인하여 상호작용이 제약되었다. 이들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길 원함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가 개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 이런 걸 만들어줘야지, 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방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중략) 이 친구들(정신장애 대학생)이 문제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케어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공동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1)

“저는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고 싶고, 속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상호작용)에 대한 기회를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1은 정신장애 대학생을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공동체 의식을 전제로 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참여자 2는 대학 내 상호작용 기회의 부재를 지적하며, 제도적 차원에서 상호작용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필수 교과 과목 중에 특수한 과목이 하나 있어요. 취지는 나를 알아보다 이런 느낌인데, 4명씩 반강제적으로 야외에서 활동을 하고 발표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면 좀 친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대학 수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정신장애 대학생과 비장애 대학생 간의 직접적 상호작용 기회가 마련된다면 편견 해소와 연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는 제도적으로 상호작용 기회가 보장될 경우, ‘소리없는 거리감’을 줄이고 공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상호작용 양식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낮아져야 하는 낙인의 허들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질환을 하나의 질환으로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치료 환경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상담과 치료의 낙인이 해소되어 누구나 치료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는 일단 심리상담의 허들을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신질환이 있어서 우울하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면 한 번씩 약간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잖아요. 굳이 정신질환이 없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상담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면 상담받으러 가는 허들같은게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5)

“주위 사람들도 병원을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병원을 고려하도록 공간을 형성하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 먹으면 엄청난 호전이 있지는 않아도 그 사람이 생존하게만 만들어주거든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5는 상담의 진입 장벽을 낮아져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연구참여자 7은 병원이 사회적인 시선을 받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될 때 비로소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낙인은 정신장애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신장애에 대한 회복 환경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는 심리 상담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낙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개인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사회 조성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공간에 적응하기 위해 타인과 대학 공간에서 상호작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다. 결국 사회적 인식과 환경이 변화되어야 개인의 노력이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노력에 대해)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제 병을 증명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있었다 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서는 저를 안 받아들여줬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의 노력을 한 건데 이쪽(사회)에서는 노력을 안 한 거죠.” (연구참여자 7)

“내가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는 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사회의 시선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더라도 사회가 못 받아들이면 그거에 대해 개선할 수 없거든요.”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정신장애 대학생의 노력은 의미없음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수용성이 동시에 작동해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연구참여자 2 또한, 개인의 노력을 받아들이는 환경이 되어야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공간이 르페브르 세 가지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공간의 재현 차원에서는 정신장애 대학생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공간의 실천 차원에서는 낙인이 해소된 환경에서 안전한 대화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재현적 공간 차원에서는 대학 공간이 두려움과 위협의 공간이 아닌 공감과 회복의 기억이 있는 장소로 재의미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대학은 비로소 정신장애 대학생과 비장애 대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학 공간으로 재생산 될 수 있다.

V.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 이론을 토대로,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 양상과 공간의 재의미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권력구조, 상징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얽혀 생산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과 사회적 배제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신장애 대학생은 입학 초기 대학에 대한 기대가 있어 새로운 기대와 ‘나’를 재발견하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실제 상호작용 경험 이후에는 정신질환 증상과 사회적 낙인이 결합되어 상호작용 양상이 불안·회피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공간은 ‘배제와 소외의 장소’로, 또 다른 공간은 ‘부분적 제약이 있는 보호지대’로 재의미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 대학생은 이해와 공감을 보여주는 교수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는 동일한 장소라도 관계·권력·상징에 따른 상호작용 경험이 상이한 사회적 공간을 변모한다는 르페브르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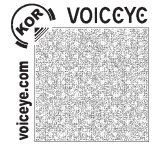
다음으로, 정신장애 대학생은 특정 공간에서 경험한 ‘기억과 감정’을 토대로 대학 공간을 재해석하여 대학 공간을 범주화하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도서관, 빈 강의실, 라운지 등 타인의 시선과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기숙사나 일부 강의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강화하는 위협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정신장애인의 대학 공간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적 공간 선택권으로 재정의되었으며, 이는 이동권 개념을 물리적 접근성 중심에서 심리사회적 관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교수의 지지는 대학생활 적응 전반에 핵심적 요인이며(이인경, 김장희, 2011; 최영

훈, 성민경, 2015), 이 연구에서는 자기노출 부담·비밀보장 우려·낙인 회피가 교수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가 정신장애 대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수용적이고 기다림의 태도를 가질 때, 이들의 심리적 안전지대가 조성될 수 있다. 교수는 수업이나 학생과의 상담과정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낙인감을 주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교수가 정신장애 대학생을 상담하기 전, 사전 교육을 통해 상담이 '성장 기회'로 인식되도록 하는(박알뜨리 외, 2023) 제도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 대학생의 원활한 대학 공간 이동을 위해서는 이동권 개념을 확장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기존 이동권 논의는 주로 물리적 장벽 제거에 초점을 맞춰 왔다. 사회적 배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도적·환경적으로 이동권이 보장되더라도 실제 이동에는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이들의 이동범위가 좁아지게 된다(이유신, 김한성, 2019). 이러한 현상은 이동권의 요소를 확장시킬 필요성을 시사하는데, 이유신과 김한성(2019), 유두한 외(2011)는 물리적 접근성과 함께 자신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결합할 때 실질적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정신장애 대학생의 이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공간에 물리적 장벽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낙인,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반영해야 대학 공간 접근성이 올라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대학생의 심리적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정신장애 대학생이 자율적으로 대학 공간을 선택·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지원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나 각 단과대학에 정신장애 대학생의 욕구에 맞게 별도의 조용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정신장애 대학생이 충분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표를 조정하거나, 수업 중 정신장애 증상이 발현될 경우 교수와 학생이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시선이나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되는 자연경관과 관련된 공간을 조성하거나 조도, 색채, 가구 배치 등을 고려한 쉼터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 내에 정서적 지지 그룹을 위한 전용 모임 공간을 제공하거나 학생생활상담센터 내 카페형 라운지를 조성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지지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 조성은 르페브르가 말한 '사회적 공간의 생산' 개념과 맞닿아 있다. 공간은 사회적 관계, 권력구조, 상징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얽혀 형성된 사회적 산물이다. 따라서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를 반영한 공간 설계와 운영이 필수적이다.

셋째, 대학 공간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상호작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정신장애 대학생의 대학 공간 접근성을 제한하고 특정 장소에 대한 회피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해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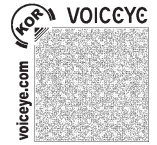


기 위해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 공동체 기반 대화 프로그램, 정신장애-비장애 대학생의 상호작용 촉진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권력관계와 의미 체계를 재구성하여 대학 공간을 보다 포용적인 장(場)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된다.

이 연구는 정신장애 대학생이 대학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경험과 배제를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이론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대학 공간을 물리적 공간으로 해석하여 물리적 장벽 제거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안전과 자율적 공간 선택권을 대학생들의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한계로, 비장애 대학생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여 대학 공동체 속성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캠퍼스의 물리적 구조와 이동 동선, 공간 배치 등 물리적·제도적 차원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대학생과 비장애 대학생 간 비교와 더불어, 캠퍼스 공간의 물리적·제도적 분석을 통한 포용적 공간 설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 강혜경, 김정효, 이경순. (2011). 장애대학생 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비장애대학생의 장애 인식, 경험 및 요구 분석. *통합교육연구*, 6(2), 265-294.
- 김동일·김은주·김재철·김태원·마티나 뢰브·신승원·이현재·최병두·하홍규·허경. (2017). 공간에 대한 사회인문학적 이해. *라운드*
- 김문근. (2015).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 연구모형에 관한 연구: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비판사회정책*, 47, 7-42.
- 김은경. (2005).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4), 877-895.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자경, 신보희. (2015).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시각장애연구*, 31(2), 1-19.
- 김정진. (2004).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정책에 따른 정신장애를 가진 대학생을 위한 학업지원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 지원교육모델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0(2), 97-124.
-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유신, 김한성. (2019). 장애인의 이동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9(1), 136-165.
- 박성준. (2024). 웹소셜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공간 생산의 주체 -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을 중심으로 -. *문화콘텐츠연구*, 31, 145-180.
- 박알뜨리, 박은영, 전소리. (2023). 책임지도교수가 인식하는 학사지도 상담에서의 어려움. *열린교육연구*, 31(6), 161-188.
- 박지혜, 이선혜. (2016).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위험 추정: 타 장애집단과의 비교. *사회복지연구*, 47(4), 361-388.
- 안성희. (2017).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대학 내 서비스와 상담전략에 대한 제언: 정신재활서비스의 적용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24(1), 29-48.
- 안희철, 김민아, 박경미. (2016).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삶에 관한 포토보이스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4(3), 120-149.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유두한, 박현경, 전병진. (2011). 보행가능한 장애인의 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시골지역 거주 장애인의 버스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1(1), 7-17.
- 육근실, 신성희. (2024). 대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획



- 된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33(2), 170-180.
- 이동일. (2022). 공간의 사회적 구성과 한국공동체 공간의 공유. 한국학논집, 86, 371-405.
- 이은진, 유성경. (2011).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083-1115.
- 이인경, 김장희. (2011).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수 멘토링 교육과정의 효과. 상담학연구, 12(2), 673-691.
- 이종남, 김근면. (2016).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유형. 주관성 연구, (34), 89-111.
- 전국대학상담센터협의회. (2022).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전국대학상담센터협의회. http://www.ccus.kr/notice/notice_2.php?tb=pds
- 정은이, 박용한. (2009). 대학 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21(2), 69-92.
- 조명근, 한송이. (2025).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경험에 대한 인식. 인문사회과학연구, 33(1), 635-655.
- 최영훈, 성민정. (2015). 대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 요소를 바탕으로 한 대학에 대한 관계성 인식 탐색: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6(1), 103-136.
- 박민영, 민지희, 유형섭, 이유민, 정지윤. (2023). 학생연구노동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노동안정보건연구소.
- Adams, H. E. (1972). *Psychology of adjustment*. The Ronald Press Company.
- Baker, R. W.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1, 179-189.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Sage.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febvre, H. (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Éditions Anthropos.
- Mohr, J. J., Eiche, K. D., & Sedlacek, W. E. (1998). *So close, yet so far: Predictors of attrition in college senior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9(4), 343-354.
- Padgett, D. K. (2001),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유태균 역,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Schaffer, H. F. (195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Houghton Mifflin Company.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todden, R. A. (2005).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ost secondary education*. TASH Connections, 31(11/12), 4-7.
- Trolian, T. L., Jach, E. A., Hanson, J. M., & Pascarella, E. T. (2016). *Influencing academic motivation: The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7(7), 810-826.

Yin, R. K. (2011). *Applications of case study research*. sage.



Abstract

Social Interactions and Boundaries of University Space Among College Students with Mental Disabilities

: Focusing on Henri Lefebvre's Theory of Social Space

EunBean Kim*, HaRi Jo**, Kyoil Lee***

This study applies Henri Lefebvre's theory of social space as a conceptual framework to explore in depth the interaction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with mental disabilities within university spaces and the processes through which these spaces are re-signifi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college students who had been diagnosed with mental disorders by psychiatric professionals, and were analyzed using a case analysis approach.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participants initially held expectations and imaginaries of the university as an open and neutral space, their perceptions shifted after actual interaction experiences, as psychiatric symptoms and social stigma intersected to produce patterns of anxiety and avoidance. As a result, some campus spaces were re-signified as sites of exclusion and alienation, while others came to be understood as protective zones with partial constraints. Second, participants reinterpreted campus spaces based on accumulated memories and emotions associated with specific places,

* Undergraduate student,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Lifelong Education & Senior Welfare, Daegu University, rewaev@naver.com

selectively choosing and navigating spaces that felt safer to them. This process constituted a form of agentic practice through which students actively reconstructed their spatial experiences and sought personal safety zones in contexts where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was limi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policy and practice in university spatial planning that extend beyond physical environmental improvements to include the provision of psychological safety and mobility rights for college students with mental disabilities.

Keywords : University students with mental disabilities, Henri Lefebvre, Social Space, Psychological Mobility Rights, Social Interaction

논문 투고 : 2025.10.15.	논문 심사 : 2025.12.03.	게재 확정 : 2025.12.15.
---------------------	---------------------	---------------------